

“오뚝이처럼 다시”… 오뚜기, MZ세대 식품기업 ‘발돋움’

지배구조 개선… 보수적 이미지 혁신
이색 컬래버 등 다양한 제품 출시
진라면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오뚜기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수적인 식품기업 이미지를 벗어 던졌다.

오뚜기는 1969년 설립한 ‘풀립상사’를 모태로 하며 즉석카레, 라면, 조미소스 등으로 잘 알려진 종합식품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오뚜기 즉석카레’ ‘토마토케첩’ ‘진라면’이 있으며 오래된 장수 제품들을 다수 보유했다. 올해 창립 53주년인 오뚜기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MZ세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사내 스타트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환경 보호,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것에 착안해 사내 스타트업 손을 잡고 대체 수산물 시장에 진출한 것.

지난 6월 오뚜기의 사내 스타트업 ‘언피스크(UNFISK)109’를 통해 ‘언튜나(UNTUNA) 식물성 바질 참치맛’을 출시했다. 지난해 9월 활동을 시작한 사내 스타트업 ‘언피스크109’는 출범 초기부터 오뚜기 중앙연구소, 오뚜기SF 연구소 등과 협업하며 대체 수산물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리고 올 7월 ‘언피스크109’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코리아 비건페어’에 참가해 ‘언튜나 식물성 바질 참치맛’을 선보였고, 같은 달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에서 비건스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

언튜나 식물성 바질 참치맛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참치’다. 대두단백을 가공했으며, 기름은 카놀라 유로 바꾸는 등 100% 식물성 성분을 사용해 참치의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

사측은 “사내 스타트업에서 참치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체 수산물 연구 개발에 나섰다”며 “사내 스타트업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라면 볶음밥

/오뚜기

◆지배구조 단순화·해외사업 시동

지배구조도 단순화했다. 오뚜기는 지난달 오뚜기라면지주와 오뚜기몰류 서비스지주를 흡수합병했다. 상장사인 조흥을 제외한 오뚜기의 모든 관계사가 100% 자회사로 재편됐다.

오뚜기는 2017년부터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해왔다. 지배구조 개선은 오뚜기에는 애플, 삼미식품, 풀립피애플의 물적분할로 시작돼 2018년 삼미식품 지주, 풀립피애플지주에 대한 흡수합병, 2021년 오뚜기라면지주를 물적분할하는 것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번 오뚜기라면지주의 오뚜기몰류서비스지주 흡수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오뚜기는 해외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BTS 진을 모델로 발탁한 오뚜기는 이번 광고로 해외에서 진라면 인지도 상승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오뚜기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적극 나선 이유는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오뚜기 전체 매출 2조 3533억 원 중 해외 매출은 2575억 원으로 비중은 10.9%다. 오뚜기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 ‘박닌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꾸준히 ‘새로운 맛’으로 호기심 유발

앞서 오뚜기는 MZ세대 사이에서 이슈가 된 컵라면 볶음밥 레시피를 적용한 ‘진라면 볶음밥’을 출시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자를 통해 겸증된 레시피로 제품을 출시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제품을 적극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이색 컬래버 제품으로 호기심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오뚜기와 제스트코가 함께 개발한 ‘오뚜기 순후추콘’이 그 주인공이다.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오뚜기 순후추의 풍미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국 5대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에 출시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뚜기의 새로운 캐릭터 Yellows

/오뚜기

11월 20일, 우리는 106,186가지 이유로 답했습니다.

명쾌한 성경 말씀 강의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우리는 신앙에 대한 물음에 각자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신학 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3기 수료생 106,186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113기 수료식 신천지 공식 유튜브 다시 보기

[YouTube](#) 10만 수료식

자체 대응만으론 한계… 특별법 제정 관건

» 1면 ‘멀어지는 반도체…’서 계속

대만매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격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해외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이나 기술적 문제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파운드리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파운드리는 수요 중심 사업으로 일찌감치 계약을 맺고 양산에 들어가는 방식, 생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위탁 사업자를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급난으로 수년간 생산 계약이 가득찬 요즘 분위기를 보면 생산 여력에 따라 수주를 맡기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퀄컴 등 팝리스들은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TSMC 등 파운드리에 배달 아가며 일감을 맡겨왔고, 퀄컴도 최근 차세대 제품을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TSMC와 기술 격차를 본

격화하면서 향후 수주전에서는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올 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양산을 시작하며 TSMC 보다 1년여 앞선 것. 이미 구글의 차세대 AP 생산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내부적으로 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 반도체 겸증 솔루션 기업 실리콘포仑트라인과 함께 선단공정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V 장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단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대대적인 인투자안이 절실하지만, 법인세만 봐도 대만에 비해 2배 이상일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안은 전무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인프라 확보 등 문제로 평택사업장을 조성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 미국에서도 14나노 수준을 양산하는 오스틴 공장만 보유하고 있다. 5나노 수준 양산이 예상되는 테일러 신공장도 2024년 말이나 완공될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juk@